

“5·18 역사 현장 걸으며 ‘오월 광주’ 정신 느껴”

SOCIETY

2025년 5월 8일 목요일

광주 동구 인문산책길 탐방 프로그램

전일빌딩245·적십자병원 등 민주화 현장 방문 조선대 학생들 “민주주의 의미 되새겨” 소감

“책으로만 접한 역사 현장을 다니며 1980년 5월,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7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 동구가 주관한 ‘인문산책길’ 탐방 프로그램에는 신입생 세미나(나의 삶, 나의 진로) 수업을 수강한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1학년 학생 17명이 모였다.

김도원 주민문화해설사가 전일빌딩 245~5·18민주광장~옛 광주 적십자병원~호남동성당 등 광주정신원형길 코스 설명을 시작으로 인문산책길 탐방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렸다. 김 해설사는 전일빌딩

245 옥상 전일마루에서 5·18광주민주화 운동 의의, 5·18민주광장, 광주읍성 등을 설명했다.

이후 5·18 민주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계탑과 분수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해설사는 “1980년 5월 광주는 단 한 건의 강도나 약탈 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이 없는 배경에는 도덕적 공동체가 있었다”며 “5·18민주광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상징적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오후 5시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계탑에서 울려 퍼진다”를 위한 행진곡’이 시계탑에서 울려 퍼진다”



광주 동구는 7일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1학년 학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산책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고 덧붙였다.

이들은 5·18사적지 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과 호남동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에 도착한 학생들은 방명록에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 성지 적십자병원’, ‘5월을 기억하겠습니다’ 등을 적으며 현황과 대동정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했다.

관, 영안실, 야외마당 등으로 나뉘는 5·18 당시 부상자를 치료한 근무자의 인터뷰, 현열 및 부상자 치료 관련 사진, 관객 참여형 콘텐츠 등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 전시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곳곳을 살펴보고 5·18 당시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마음속에 새겼다.

호남동성당으로 이동한 김 해설사는 1980년 5월21일 고 조비오 신부가 다른 신부들과 회의하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의미 있는 장소라고 설명하며, 1989년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 청문회에 언급됐다고 안내했다.

학생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오늘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고 평가했다.

김효정씨(20·여)는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 적십자병원 등을 걸어 다니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해설사의 설명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전주 출신인 김태영씨(20)는 “이번 탐방 투어 덕분에 1980년 5월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산책길은 동구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지역 역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정신원형길’, ‘무등가는길’, ‘뚝새유길’, ‘밝은 희망길’로 구성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35 달빛 15:26
☁️ 예보 19:24 달빛 03:13



광주	☀️	11~24
목포	☀️	10~22
여수	☀️	12~19
순천	☀️	9~21
구례	☀️	8~23
광주	☀️	7~22
임도	☀️	10~21
흑산도	☀️	11~18
진남	☀️	8~21
고흥	☀️	8~21
진도	☀️	8~20

목포	밀물(고)	11:37 / --:--
	썰물(저)	04:36 / 17:05
여수	밀물(고)	06:34 / 19:08
	썰물(저)	00:17 / 12:46

광주송정역, 오월 광주 ‘관문’ 된다

광산구, 15~21일 5·18 안내소 운영... 행사 안내

광주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제 45주년을 맞아 15일부터 광주송정역에서 ‘5·18민주화운동 안내소’를 운영한다.

7일 광산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은 80년 5월 당시 시위군중이 집결한 5·18 역사 현장이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의 공간·기능적 특성,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오월광주를 알리는 안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광주송정역 광장에 마련되는 안내소에선 광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와 5·18 사적지 정보를 제공한다. 5·18 제45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한 장소, 일정, 교통편 등도 안내한다.

광산구는 21일까지 7일간 안내소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광산구는 또 17일 윤상원 열사 생가 가 있는 임곡동 천동마을 일원에선 청소년, 시민이 함께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연다.

윤상원기념관과 연계한 ‘5·18 항쟁 알기’도 운영한다. 윤상원기념관은 이날 ‘민주주의를 구한 광주의 함성’이란 이름으로 전시 해설, 종이방향제 만들기, 평화의 열쇠고리 만들기 등 5·18민주화운동 체험 마당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1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상원 열사 생가와 윤상원 기념관에서 윤상원 열사 추모식을 연다.

임정호 기자 jh4415@



광주·전남지역 징병검사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7일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고소”

광주변협법률지원단·민변 광주전남지부 시의회서 설명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법률적 조력이 간절한 유가족들을 위해 광주지방법변호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사고책임자를 고소한다.

광주지방법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1229제주항공참사 고소장 제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항공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유족 고소인들 등을 상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유족대표(김유진)·법률지원단 대표(임태호 변호사) 인사말, 고소장 설명, 유족 발언, 질의·응답, 고소인 명부 등록·서류접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지원단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방영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발표와 보고를 보면 왜곡됐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 정

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구조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조사위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혁하고, 국토부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사위는 일방적인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과 진상조사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유족은 일방적인 설명의 객체가 아니라 진상규명의 주체”라고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담배 2갑 흡친 강도 유지

만년필 ○담배 2갑을 흡치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헌 재판장은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시30분 전남 나주시의 한 편의점의 보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담배 2갑을 흡친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출동한 30대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영업 종료된 편의점에서 절도를 벌이고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편의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설업체 직원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경감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주가치’ 확산 앞장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민주화운동의 가치 확산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1월부터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만2000여명이 교육관을 이용했다.

지혜마실협동조합, 김계 백석초, 전교조 서울지부, 정주여고 등 전국 각지의 교육기관을 비롯해 단체들과 연계한 현장

중심 사적지 답사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마재단과 함께하는 5·18 가족캠프, 전교조와 공동주최로 ‘동호와 함께 걷는 광주기행’, 고흥교육지원청과 공동주최하는 ‘전남 의(義) 역사교육을 위한 5·18현장체험학습’ 사적지 탐방과 주제별 체험학습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O'S

합의금·인·추·제·본·세

정회원고용부서 - 나코스(유) 실무지구 마케팅팀

062) 376-5425